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국회의원 황명선

민중당
보도자료
PRESS KIT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11호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5 인본빌딩 3층

T. 02-784-9820 / F. 02-6788-6115
 T. 02-784-9820

보도일시	참고자료	사진	문의
2024. 10. 18.(금) 배포즉시 보도가능	-	-	황명선의원실 02-784-9820

황명선 의원, “면세점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필요”

- 2023년도 기준 국내 면세점 매출은 13조 7,586억 원, 면세점 사업은 국가 기간산업
- 황명선 의원, “세계적 규모의 면세사업 위상에 맞게 노동자 근로 환경도 개선돼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면세점 노동자의 근로환경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명선 의원은 “면세점 사업은 국가 기간산업 규모로 성장했고 한국 경제와 관광산업의 주요 성과로 여겨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현재 면세업 규모와는 달리 면세업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는 심각한 수준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심사 평가기준에 의하면 근로환경 개선 적정성에 대한 평가 사항이 있다. 이는 관세청이 면세점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도 해석된다.

또한 관세법에 따라 운영되는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면세 산업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관세청은 국장급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 김소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해 면세업 종사자들의 근로실태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했다.

면세점 종사자들의 실태를 묻는 황 의원 질의에 대해 김소연 위원장은 “면세점은 화려한 공간이지만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은 아니다”면서 “노동자들은 밥 먹을 공간도 시간도 없고 물도 제대로 마실 수 없는 환경”이라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와 관련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근로 환경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면서 “관세청도 직접적인 관리 주체가 아니라는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 면세점 특허심사 평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명선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은 13조 7,586억 원에 달했고 지난 8월 기준으로 9조 6,469억원 매출을 기록했다. 국내 공항면세점 종사자수는 총 6,387명으로 조사됐다. <끝>

관세청

기재부

관세청 특허심사 평가기준

평가 분야	평가항목	매점	평가 방식
이행 내역 (1000)	【A】특허보세 구역 관리역량 (250)		
	① 임직원 비리 및 부정 여부	150	비계량
	② 보세화물 관리 미흡 여부	100	비계량
	【B】운영인의 경영능력 (150)		
	① 영업개시(계획에 의한 투자) 이후 감사의견 적정성	50	계량
	② 성장성/안정성 관련 재무지표의 변화 적정성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100	비계량
	【C】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500)		
	① 중소·중견기업 제품 판매 활성화 및 중소·중견기업과의 협력 관계 구축의 적정성	150	비계량
	②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관련 이행내역	150	비계량
	③ 사업계획에 제시한 고용계획 이행 및 고용의 질 개선 적정성	100	비계량
	④ 근로환경 개선 적정성	100	비계량
	⑤ 친환경 경영 활동의 이행내역	100	비계량
합 계 : 총 9개 (비계량 8개, 계량 1개)			1,000

관세법

176조의4(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 수 등 보세판매장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보세판매장 제도 운영위원회를 둔다.
- 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